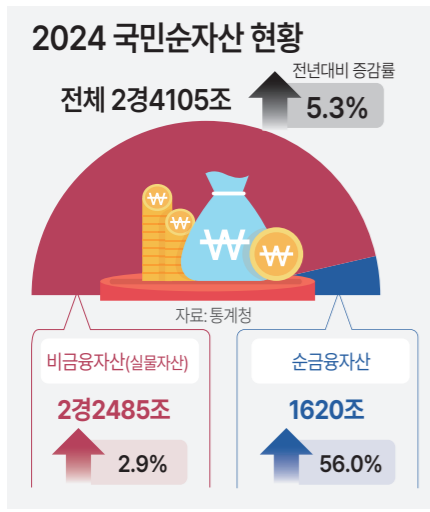


# 집값·해외 주식 호재... 국민순자산 2.4경 넘었다



작년 1217조 경중... 금융자산 582조 큰 폭 증가  
거래 취득 308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이 192조

주식과 부동산의 보유량까지 상승에 힘입어 국민순자산이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2024년 기준 국민순자산이 2경4105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2023년 대비 1217조 원(5.3%) 증가한 수치다. 우선 국민순자산 전체의 93.3%(2경2485조 원)를 차지하는 비금융자산은

2.9%(635조 원) 늘었다. 특히 금융순자산이 많이 늘었다. 전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불과했지만 전년 대비 582조 원(56%) 증가했다. 비금융자산의 증가액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호재로 매입량이 늘었으며 이는 국민이 보유한 자산의 가

치 상승에 주된 요인이었다. 국민순자산 전체 증가량 1275조 원의 74.7%에 달하는 908조 원은 국민이 보유한 자산 가치 상승의 결과였다.

금융자산의 경우 거래의 증감, 즉 보유자산의 가치가 전년 대비 465조 원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2024년 중 미국 S&P500의 경우 23.3% 상승하는 등 해외 주식시장에 호조가 지속됐으며 원·달러 환율도 올랐다는 점을 자산가치의 이유로 제시했다.

실제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4.4% 상승해

23년 1.1%증가에 이어 오름세가 확대됐다. 비금융 보유자산의 경우도 352조 원 증가했다. 한은은 비금융자산의 경우 토지 가격이 2023년 2% 감소한 반면 2024년에는 1.2%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매입한 비금융·금융자산의 양도 증가했다. 국민이 거래로 취득한 순자산은 308조 원가량 증가했으며 이 중 부동산 등 비금융 부분의 순자산이 192조 원,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부분의 순자산은 117조 원 증가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 소상공인 살리기 현장 간담회 열려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이 17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과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각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15명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4명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라고 한 것을 계기로 개최됐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건의한 것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었다. 이미 대출 상환을 완료해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용 저금리를 출시하거나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안, 장기분할 상환을 확대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해 대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등의 방안이 나왔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이 신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법도 제안됐다.

금리와 수수료를 경감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카드·캐피탈사에서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중도 상환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 담배·국제 등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 소득세 환급받으려다 되려 가산세 폭탄 주의

국세청, 과다 인적공제 점검 착수  
과다 환급 최대 40% 가산세 붙어

최근 소득세 관련 환급 플랫폼 '삼점삼' 등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은 이용자들 가운데 일부가 국세청으로부터 과다환급 통지와 함께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동환급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조성건 반석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17일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보험설계사·강사·캐디 등의 직종은 일반 사업체와 달리 사업 경비에 무엇이 해당되는지 판단이 어려워 모든 소비를 비용 항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개인 용도로 쓴 '가사 경비'를 비용 처리해 과다환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15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총 1443명을 점검했고 그중 1423명에게서 모두 40억7000만 원을 추징했다. 한 사람당 286만 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해 소득세 환급 신고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에 과다 인적공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삼점삼은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종합소득세 자동신고 서비스로 주로 프리랜서·아르바이트 종사자·N잡러 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득자를 대상으로 국

세청 홈택스 자료를 기반으로 환급 가능액을 자동 계산한 뒤 전자신고까지 대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간편화된 절차가 오히려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맞물려 과다환급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경우 과다환급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가산세는 초과 환급된 금액에 대해 하루 0.022%씩 계산되며 100만 원을 과다하게 환급받고 이를 30일 후에 정정할 경우 약 6600원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과다환급 가산세는 최대 40%까지 발생

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신고 대행 플랫폼이 아닌 신고자 본인이 납부해야 하며 이는 전적으로 신고자의 책임이다.

삼점삼은 환급 여부 조회는 무료지만 실제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금의 10~2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환급금이 10만 원이라면 2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2025년부터 자체적으로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삼점삼과 유사하게 5년간의 소득 자료를 분석해 환급 가능성을 제안하는 기능이지만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홈

택스·손택스 앱을 통해 비사업자도 직접 이용할 수 있어 신고의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납세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조성건 공인회계사는 "소득세 과다환급 문제는 세무 플랫폼의 잘못이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납세자의 인식이 더 큰 문제다"고 강조했다.

삼점삼은 이번 가산세 논란을 계기로 편리함과 정확성 사이에서 어떤 방식의 세금 신고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소비자의 책임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짚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 "스미싱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가 다가오면서 금융당국이 스미싱 피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거나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휴대전화에 걸린 금융기관 영업고객센터와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스미싱은 SMS(문자)와 FISHING(피싱·낚시)를 합한 말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뤄지는 사기다. 사기범이 보낸 악성 앱 설치 링크나 악성 사이트를 무심코 클릭했다가 휴대전화에 설치된 금융 앱에서 돈이 인출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당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1일부터 진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결제사기(스미싱)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지급대상 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 등은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링크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절대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만약 스미싱 의심 정황을 포착하거나 내가 스미싱 피해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

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는 17일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링크를 무심코 클릭했다가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 피해 발생 시 우선적으로 해당 금융기관과 112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118에 먼저 전화 주셨다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시급한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악성 앱 설치 의심 정황이 있다면 V3나 알약 등으로 정밀 검사하고 휴대전화 제조사를 방문해 진단을 받아 볼 것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

를 막기 위해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신정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무단 대출이나 신규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다. 또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헌신과 열정의 파노라마  
최 광 저음

The BUCK STOPS here!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대망한다

이승만 | 조지 워싱턴 | 콘라트 아데나워 | 리관유 | 사카모토 료마 | 에이브러햄 링컨 | 윈스턴 처칠 | 마거릿 대처 | 키스 조셉 | 로널드 레이건 | 박정희 | 전두환 | 김재익 |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 덩샤오핑 | 토머스 제퍼슨 | 프랭클린 루스벨트 | 당 태종 | 이세민 | 요시다 쇼인 | 후쿠자와 유키치 | 관중

북앤피플

#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 헌신과 열정의 파노라마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적 소명을 띄고 태어났다.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자유의 본질을 설파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굴레를 해소하려 했던 지도자,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 헌신했던 지도자, 인간의 정신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거나 공산주의를 멸망시킨 지도자, 가난한 국가를 경제 대국으로 바꾼 지도자, 혼란과 분열의 구렁텅이에 빠진 나라를 구한 지도자 등 그 내용이 참으로 다양하다.

##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대망한다

이승만 | 조지 워싱턴 | 콘라트 아데나워 | 리관유 | 사카모토 료마 | 에이브러햄 링컨 | 윈스턴 처칠 | 마거릿 대처 | 키스 조셉 | 로널드 레이건 | 박정희 | 전두환 | 김재익 |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 덩샤오핑 | 토머스 제퍼슨 | 프랭클린 루스벨트 | 당 태종 | 이세민 | 요시다 쇼인 | 후쿠자와 유키치 | 관중

북앤피플 (02-2277-0220)

**최 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현 대구대 경제금융학과 석좌교수